통합민주 '공천 룰' 막판 진통

박재승, 비례대표 선정에도 참여…박상천과 한때 충돌

통합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천 '룰'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심위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당 지도부와의 '힘 겨루기' 양상이 빚어지면서 공천 세부원칙 마련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박상천 공동대표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합의제 정신이 존중돼야 하고 박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이 주어져선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박(朴)대 박(朴)'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손 대표가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공심위원장직을 수락했던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하자 상당부분 박 위원장의 입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공천 세부규칙이 조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난 19일 잡혔던 첫 공심위회의 및 기자회견도 취소하는 등 비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대단한 강단"이라는 기대감과 "진짜 어떤 공천 결과가 나올지 걱정된다"는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양측의 충돌지점이었던 공심위의 재심 의결정족수는 박 위원장의 주장대로 '재석 2분의1 출석, 참석 2분의 1찬성'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의결의 민감성을 감안해 '3분의2' 의결정족수 안을 주장했던 민주당계가 물러선 것이다.

비례대표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박 위원장이 공심위에 비례대표 선정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을 거듭한 끝에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때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손·박 공동대표에게 별도기구 설치 여부를 일임하기로 했고, 추천위 구성은 두 공동대표와 박 위원장이 의논해 결정키로 했다. 손·박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추천위는 지역구 공심위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별도기구를 두되 박 위원장이 비례대표 추천위원장을 겸임토록 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세부규정 조율작업이 지연되면서 부정부패·비리 전력자 배제 여부 등 구체적 공천 기준 마련 작업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천기준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차남인 김홍업 의원, 신계륜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장관 등의 공천 신청 허용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합뉴스

"한나라 수도권 공천 경쟁, 우리도 있다"

■광주·전남 출신 누구

〈유준상씨〉

〈이종구씨〉

〈배종덕씨〉

〈심재철씨〉

〈강성만씨〉

광진을 신청 유준상씨, 비례대표 호남 몫에도 기대

배종덕·심재철·강성만씨 등 약진…장전형씨 탈락

한나라당 일부 지역구에서 공천 확정자가 나오고 2~4배수로 후보자가 압축되는 등 공천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도권 출마를 희망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역구 공천을 희망한 광주·전남 인사들은 대략 10여명 정도. 이중 상당수는 2~4배수 안에 포함되며 공천 희망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를 희망함과 동시에 탈락할 경우 비례대표를 노리는 입지자들도 있다.

보성 출신으로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등에서 4선을 한 유준상(65) 전 국회의원은 서울 광진을 지역구 공천을 희망해 지역구 출마를 노림과 동시에, 비례대표 호남 몫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역시 같은 보성 출신인 이종재 전 의원의 아들로 지난 총선에서 강남갑에 출마, 여의도에 입성한 이종구(57) 의원은 같은 지역에 또다시 공천을 신청을 해 1차 심사에서 공천을 확정지었다.

한나라당 목포시당위원장 출신의 배종덕(62) 에스콤 대표는 양천갑에, 광주일고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심재철(50) 의원도 현 지역구인 경기 안양 동안을에 공천을 각각 신청, 첫 심사에서 모두 2배수 안에 들어가며 공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또 목포 출신의 강성만(47) 부대변인은 양천을에 공천을 신청, 3배수 후보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공천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광주 출신의 고승덕(50) 변호사도 서초을에 공천을 희망해 전북 출신의 김덕룡(66) 의원, 상원종 한국입법연구원장 등과 공천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훈(57) 조선대 교수는 서울 금천에 공천을 신청, 4배수 후보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으며 희망을 이어갔으나, 같은 지역에 공천을 희망한 진도 출신 장전형(46)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

4·9 총선 현장

박주선 '독거노인 관리사' 간담회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0일 동구청에서 열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간담회'에 참석, 20여명의 생활관리사들을 위로.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구는 노령인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다"며 "생활관리사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

박지원 "盧정권 5년간 핍박받아"

○…박지원 목포시 예비후보는 20일 "노무현 정권 5년은 박지원 징역 5년이었다"며 "김대중 정권과의 차별화를 노린 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저만큼 핍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

박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통합민주당과 공천심사위가 당선 가능성에 기초하면 제가 무난히 공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이용섭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참여

○…이용섭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시 첨단 응암공원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축제' 행사장을 찾는 등 표심 잡기에 분주.

이 후보는 이날 활쏘기·윷놀이 등 민속 놀이를 주민과 함께 하고, 길놀이와 '첨단골 열린음악회' 등에도 잇따라 참석하는 등 인지도 높이기에 총력.

심재민, 평동산단 활성화 논의

○…심재민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0일 평동산단을 방문, 입주업체 대표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단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

심 후보는 "민생정책 전문가로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

유종필 "야당다운 야당 건설할 것"

○…유종필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무대에서 통하는 정치력으로, 광주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며 출마를 공식화.

통합민주당 대변인인 유 후보는 이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깨끗하면서 줏대 있고 중앙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

김종식 "지방재정 문제 해결 최선"

○…김종식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입성, 30여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출마를 선언.

서구청장을 지낸 김 후보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 건전한 지방 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김경진, 창조한국당 탈당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20일 "더이상 창조한국당은 희망이 없다"고 밝히고 탈당을 선언.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탈당하지만 총선 불출마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한 정치 활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

김화진, 목사 등 150여명 지지 선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목사 등 150여명이 20일 김화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정당 공천을 희망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

이들은 "김 후보는 선거 출마와 상관없이 13년째 등하교길 교통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이라며 "국회에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펼쳐줬으면 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

김일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노력"

○…김일주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20일 지역 상가를 돌고 청소년 상담교사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바닥 표심 얻기에 주력.

김 후보는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

이승채 "공약 실현 선언식 갖자"

○…이승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0일 예비후보자들에게 "지역을 위한 주요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남 민심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약실현 공동행동 선언식'을 하자고 주장.

송병태 노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송병태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0일 독거노인과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 봉사 활동을 벌이면서 표심 공략에 주력.

송 후보는 이날 운남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 독거노인 등 500여명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지를 당부.

양회주 "목포 삼학대교 조기 건설"

○…양회주 한나라당 목포 예비후보는 20일 "목포에 선박엔진공장을 유치하고, 삼학대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

양 후보는 이와 함께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정병호 "노인 복지정책 개선 시급"

○…정병호 강진·완도 예비후보는 20일 완도군 약산면·금일면 지역의 노인정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얼굴 알리기 행보를 본격화.

정 후보는 "농·어촌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지역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회에 입성, 지역 노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